

2016년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 선정

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지역경관 향상 지원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토품격을 높여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2013년 「경관법」 개정(2014년 2월 시행)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지자체 재정 여건이 영향을 미쳐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관리와 조화로운 경관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토경관을 개선하고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과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건축물·가로·공원과 녹지 등 개별 경관요소에 대한 통합적 계획 및 사업 추진으로 국토품격 향상과 개성 있는 지역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지역사업에 민간전문가의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2016년 지역경관 향상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경관 향상 지원사업 선정은 사업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와 함께 시작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 응모자의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사업의 성격과 추진 방향, 사업공모 일정과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한다. 또한 각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 소개를 통하여 각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한다.

2016년 사업 선정을 위한 설명회는 2015년 10월 15일에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는 시·도와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약 123명이 참석하였다.



©차경미



2016 지역경관 향상 사업 설명회와 우수사례 발표회 진행 모습

먼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 부연구위원이 각 사업의 성격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 현재 하동군 민간전문가로 활동 중인 안재락 경상대학교 교수가 하동군 민간전문가 사업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진준호 주무관이 2016년 지원사업 공모일정과 절차등을 전달하였다.

각 사업의 2016년 신규사업 공모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다.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선정 과정 계획수립(1차연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계획수립 사업 지역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는 국가건축위원회 추천 위원 3인

(온영태 위원, 박찬용 위원, 박소현 위원)과 과거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참여 민간전문가 2인(이영범 경기대학교 교수, 김혜정 아키텍플랜 소장)으로 구성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계획수립 공모 결과 총 28건이 접수되었고, 대부분 경관과 원도심 개선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이 주요 내용이었다.

서면심사를 통해 현지평가 대상 5곳을 선정하고, 평가팀을 구성(선정위원, 국토교통부 담당자, 모니터링 연구진 각각 1~2명)하여 하루에 1~2개 지역씩 총 3일에 걸쳐 현지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평가팀이 모두 참석하여 각각 진행한 현지평가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가점사항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정안을 마련하였다.

선정안을 바탕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계획수립 사업으로 총 3개의 사업(경남 밀양시, 경기 시흥시, 인천 옹진군)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은 계획수립 비용으로 지역당 1억 5,000만 원씩을 지원받아 2016년 말까지 해당지역의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2차연도)

기본 및 실시설계는 디자인 개선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정착 및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계획수립을 진행한 6개소(경기 고양시, 경기 광주시, 충남 논산시, 경북 상주시, 대구시 남구, 전남 강진군)를 대상으로 추진성과가 우수하거나 연속 지원의 효과가 높은 지역에 추가로 지원한다.

평가위원으로 강인호 교수(한남대학교), 장옥연 소장(온공간연구소), 김현진 소장(SPLK건축사사무소), 김영중 소장(라움플랜) 4인이 참여하였다.

성과평가 보고서와 모니터링 평가등을 통해 계획수립 상황과 실행력을 고려한 결과, 기본 및 실시설

계 대상으로 전남 강진군을 선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강진군은 1차연도 통합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세부사업 중 우선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본설계과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선정 결과

구분	지자체	사업명
계획수립 (1차연도)	경남 밀양시	산수(山水)도시 밀양 RE-디자인을 위한 "2+2" 네트워크 플랜
	경기 시흥시	다양성이 공존하는 자족적 구도심 활성화 계획 "Wannabe 신천인"
	인천 옹진군	통일한국과 해양관광시대를 준비하는 백령 평화마을 만들기
기본 및 실시설계 (2차연도)	전남 강진군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

2016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선정 과정 신규사업(1차연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건축과 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운영 단계에서 민간전문가(지역총괄계획가)를 활용하여 디자인 및 경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확보와 지자체 여건에 따라 1년 후 종료가능하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의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는 지자체 민간전문가 참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 안재락 경상대학교 교수,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으로 구성하였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신규사업 공모 결과 총 6개 지자체가 응모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11일에 선정평가를 진행하였다.

선정평가는 민간전문가 운영 방안의 효율성과 적절성, 민간전문가 업무 범위 및 내용의 적절성, 행

정 지원조직 운영계획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담당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 정도와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총 4곳의 지자체(경기 포천시, 경북 고령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를 선정하여 민간전문가 인건비와 사업추진 운영비로 지자체당 3,500만 원(정액 지원)을 지원한다.

연속사업(2차연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와 모니터링 팀(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2015년에 추진한 사업 중 성과평가를 통해 연속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 확산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12월 9일 성과발표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015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8곳(서울 서대문구, 경기 평택시, 대구시 남구, 세종시, 인천시 옹진군, 전북 임실군, 전북 익산시, 강원 평창군)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온영태 교수(경희대학교)와 안재락 교수(경상대학교)가 평가를 진행하였다.

성과평가는 최초 수립한 실행계획서의 이행 여부,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파급력, 지자체의 지원조직 운영 여부,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 의지 등 항목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기 평택시와 전북 임실군을 제외한 지자체 6곳(서울 서대문구, 대구시 남구, 세종시, 인천시 옹진군, 전북 익산시, 강원 평창군)을 연속사업 대상으로 확정하였고, 지자체당 2,000만 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한다.

2015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사업 기획단계의 사전검토 및 관련 사업 조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

2016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선정 결과

구분	지자체	담당 부서	민간전문가
신규사업 (1차연도)	경기 포천시	기획예산과, 도시과	조치웅 삼육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경북 고령군	기획감사실(기획담당)	김혜란 도시건축 소도 부사장
	강원 횡성군	기획감사실(관광개발담당)	추용욱 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충남 부여군	도시건축과	강인호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연속사업 (2차연도)	서울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	주대관 (사)새건축사협의회 상임위원
	대구시 남구	도시재생총괄과	박선경 SK 건축사무소 대표
	세종시	청춘조치원과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인천시 옹진군	건축민원과	이종숙 건축사사무소 제우현 대표
	전북 익산시	도시개발과	이경찬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강원 평창군	도시주택과	백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를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합리적 재설정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중앙정부 공모사업 준비 지원으로 기획력이 강화됨에 따라 공모에 다수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 지자체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협업의 경험 등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지자체의 디자인 행정 통합 및 조정 체계 정착과 참여형 행정 등 조직체계의 변화에 기여하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대효과

그동안 국토 경관은 경제성·기능성 위주의 토지 이용, 건축물·시설물의 경관 관리 미흡 등으로 국가 위상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었으나,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토경관을 향상시키고 공공사업의 디자인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관계 설정,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일반화된 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지역의 통합적 계획과 민간전문가 참여 등 통합적 경관형성 및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단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통합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한 후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역 정체성이 강화된 통합적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도시·건축 분야에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총괄 조정 및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디자인 품질이 향상되고, 사업간 연계·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경관포털 사이트(www.beautifulcoun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